

결 정

2018 - 4018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한경닷컴 발행인 고 광 철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17년 12월 31일자(캡처시각) 「6억 번 “女교사” 매일밤 제자7명과 돌아가며..」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 "척주관협착증" 특허 시술로 간단해결?! "화제"
- "빛"많아도 12月 누구나 정부서 1억원 지원!!
- 똥배"기름덩어리" 이렇게 빨리빠져?! 충격!!
- 6억 번 "女교사" 매일밤 제자7명과 돌아가며..
- 美교수"영어는 '한국어'로 배워라!"발언.충격!
- 만사형통 신비한 "도법 주문" 아우성 신청!!
- 6억 번 "女교사" 매일밤 제자7명과 돌아가며..
- 알파고 이젠"주식",두시간만에 32억 벌어!! "업계..."

<17. 12. 31. 18:10 캡처>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23127701?nv=3&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cast&utm_campaign=newsstandcast_naver_all

한경닷컴은 주식정보제공업체를 광고 하면서 「6억 번 “女교사” 매일밤 제자7명과 돌아가며..」 라고 해 마치 여교사가 매일밤 제자들과 성매매라도 한 것처럼 오해할 여지가 있는 선정적인 제목을 달았다.

하지만 이 광고를 클릭하면 여교사에 대한 내용은 없고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여성회원이 1억원대 자산 인증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2, ‘혐오감이나 어떤 욕정을 불러일으키는 음란, 추악 또는 잔인한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

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http://buxmeto.co.kr/preco/w/?ref=874&cc=1132136>>

[이슈] 주식 '규칙'만 알면 "月3,000만원"씩 벌어간다? 비결 공개..화제!

최종등록 :2017-12-30 09:13



최근 한 커뮤니티 사이트의 여성회원이 1억원대 자산 인증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주인공(이하 A씨)은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얼마 안 되는 월급을 받자마자 학자금대출과 월세, 통신비 등을 내고 나면 식비와 교통비만 간신히 해결하던 사회 초년생이었다. 그런 A씨가 현재는 한 달 수입만 3천만 원에 달하는 자산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2018년 2월 7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김용담	기.용.담
위원	정승호	정승호
	장명국	장명국
	이동현	이동현
	장인철	장인철
	김규식	김규식
	강희	강희
	하윤수	하윤수
	김영모	김영모
	박현갑	박현갑
	박미경	박미경